

-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목 차

I. 총 평	1
II.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5인)	3
③ 청중토론	5
④ 마무리 말씀	7
III. 토론회 도출 과제 및 결론	7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참 고]

<input type="checkbox"/> 의정토론회 사진	9
<input type="checkbox"/> 언론보도	10

-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충남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2. 11. 02.(목), 14:00~16:00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 참석 : 50여명(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도민 등)
- 주제 : 충청남도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충남도의 현황 파악과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계층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의 고독사가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층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남에 따라,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사회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 1인가구 현황과 고독사 예방대책 및 관련 선행 연구자료 등을 살펴보고 특성을 분석하여 고독사 진입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고,
 - 고독사 위험계층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충남 1인가구 전수조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민-관 거버넌스 강화, 복지기관 연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오정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 최근 1인가구 증가와 관련하여 주거·고용·소득·사회적 관계망 등의 취약 분야별 및 비혼과 만혼, 이혼, 사별에 따른 1인가구 특성과 증가에 대한 인과 관계를 제시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의 청년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며, 무연고 사망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기함
- 충남도는 2020년 기준 4년째 전국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등의 관련 데이터가 미비한 수준이고, 특히, 고독사와 관련된 시스템의 부재로 예방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자살 실태를 살펴, 도내 1인가구 전수 조사, 고독사 위험 계층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개발, 주민 조직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2] 지평토론(5인)

① 양승록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고독사 원인을 개인주의, 고령화에 따른 1인가구 증가와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 코로나19,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독거인의 사회적 고립 등 3가지로 구분함
- 다양한 연령층의 고독사 원인 파악과 현실적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이웃, 친구, 동료 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개인적 차원의 예방책을 제시함
- 고독사 위험계층 발굴, 고립가구 발굴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마을공동체 조직화, 좋은 이웃 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함

② 유재언(가천대학교 교수)

-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해 충남 관련 조례의 대상을 노인에서 청년, 장년까지 확대하고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1인가구에서 다인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함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 외로움 경감을 위한 다연결 사회 환경조성, 위험군 발견, 의뢰, 서비스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등 고독사 지원 방향을 결과보다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함

- 또한 충청남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고독사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 것을 제안함

③ 구선희(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초핵가족화 및 가족해체 증가, 관계망 파괴 등 사회적 변화를 1인 가구와 고독사의 원인으로 파악했으며, 청·장년층, 여성 보다는 남성,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 등의 원인을 살펴봄
- 충남도에서는 2021년 7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문제 대응을 위한 시스템 부재와 모호한 전달체계로 인한 지원의 한계점을 문제로 제기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복지기관 간 연계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④ 오복경(충청남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어느 특정 연령의 문제나 1인가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미래의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제기함
- 경제적 빈곤, 심리·정신적 문제도 고립으로 분류해야 하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분리될 수 없는 단계적 과정의 결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1인가구 전수조사, 고립가구 발굴 등 시스템 구축이전에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망자 및 가족의 심리적 부검 등 사회복지적 접근을 기본으로 해야 함

- 우울, 자살, 알코올 등 주민에 대한 보건과 복지 연계 및 작동은 원활한 지 확인할 것은 제안함

⑤ 임은영(충남도청 사회복지과 지역복지 팀장)

- 충남도의 정책은 저소득 청년, 독거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바, 청년 및 중장년층의 1인가구 및 고독사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구체적인 정의, 1인 가구의 형태 분류, 고립위기 가구 발굴 방안 등에 대한 개선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함
- 충남도에서는 향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시행하며, 아울러 정기적인 AI 전화를 하는 등 스마트 돌봄 사업도 추진할 것임

3] 청중토론(질의답변)

- 농아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의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받기가 어려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임, 이에 대한 방안은?

[질문 : 천안시민]

- 노인, 청년, 중장년 등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계층을 분류함에 있어 장애인 계층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제공과 관련하여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지민규 충남도의원]

- 지난해 8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이 서울, 경기, 부산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의 39개 시군에서 시행되었는데, 충남은 시범사업 대상에 제외됨
- 해당 시범사업 시행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고독사 자살 예방 대응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교육·예방을 함께 할 때 더욱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은?

[질문 : 조희철 충남사단법인 요양보호사협회 회장]

- 충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선정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정부의 12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다시 공모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오늘 토론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반영 가능한 부분은 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답변 : 임은영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지역복지 팀장]

- 충남도는 생애주기적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유형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 또한 보호종료 아동의 후속 조치와 지원 부족으로 인한 고독사 증가의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질문 : 김상순 천안 KYC]

4 마무리 말씀

- 이번 토론회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음
-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참석하신 분들과 진행 사항을 공유할 것이며, 건의 사항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립가구 및 사각지대 1인 가구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충남지역의 고독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함

<결 과>

- 충청도와 협의하고 도의회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고독사 위험 계층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 마을 주민 조직화 사업
 - 민-관 거버넌스 강화와 복지기관 간 연계 필요

N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청
 -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붙임 1. 의정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HOME > 내포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위한 방안 마련 모색

▲ 우명균 기자 | ⓒ 승인 2022.11.02 16:23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주제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주민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주제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지민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양승록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유재언 가천대 교수, 구선희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복경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임은영 충남도청 사회복지과 지역복지 팀장 등이 참석했다.



HOME > 충남 > 내포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위해 팔 걷는다

▲ 박보성 기자 | ⓒ 승인 2022.11.02 16:16

지민규 의원 '충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인가구 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체계적 지원 위한 정책 마련 힘쓸 것"



▲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주제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